

1 황당 반전 2 떡밥 해석 3 명품 연기

김순옥 작가의 막장 전개...웃음 요소로 승화
극중 사소한 단서가 실시간 검색어 등장하기도
연기대상 8관왕에 빛나는 배우들 열연 인기비결

“왜?”는 없다. ‘와!’만 있을 뿐.”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를 향한 시청자들의 반응이다. 개연성은 없지만, 짜릿한 속도감만큼은 최고라는 이야기다. 광기에 휩싸인 상류층 주인공들의 얽히고설킨 악연을 풀어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다.

“욕하면서 본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줄을 잇는 ‘펜트하우스’가 5일 방송을 끝으로 시즌1을 마무리한다. 제작진은 2월부터 시작하는 시즌2·3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른다.

불륜·학교폭력 등 자극적인 소재로 매회 휘몰아친 드라마가 마지막 회를 남겨두고 또 다시 최고 시청률인 24%(닐슨코리아)를 넘어설지 관심을 끈다.

● ‘김순옥표 막장 월드’, 이제는 하나의 장르로

인기의 중심에는 대본을 쓴 김순옥 작가가 있다. 앞서 ‘왔다! 장보리’ ‘내 딸, 금사월’ ‘황후의 품격’ 등으로 황당한 전개를 보여 ‘막장의 대모’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개의치 않는 듯하다. 주인공 이지아, 김소연, 유진이 펼치는 피 튀기는 막장 복수극이 ‘김순옥 월드의 결정판’이란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김 작가의 작품 세계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뽐’(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특정한 콘텐츠) 현상의 중심에 섰다. 죽었다 살아나는 등 전작의 황당한 장면들을 한데 모은 게시물들이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다. ‘이게 드라마냐’며 쏟아지던 조롱이 일종의 웃음 요소로 승화된 셈이다.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펜트하우스’를 볼 자세가 안 되어있다”는 애시청자들의 주옥같은 조언(?)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시즌1을 마치는 5일 시청률 신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제공 | SBS

들도 곳곳에 퍼지면서 화제몰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사소한 ‘떡밥’도 줄길 거리가 된다!

드라마의 주축인 이지아와 김소연이 “매회 대본마다 예측이 모두 빗나간다”며 혀를 내두른 반전이 시청자를 응집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측 불허 전개에 시청자들은 각종 단서로 앞 다투어 내용을 추측하고 나섰다. 캐릭터들의 이름이나 그들이 부르는 노래 제목 등 사소한 단서도 놓치지 않는다.

시청자들의 관심은 드라마의 ‘화력’으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극중 유진의 ‘트랜스젠더 설’까지 제기되며 화제를 모았다. 유진의 DNA 검사 결과지에 염색체가 ‘XY(남성)’로 표기됐기 때문이다. 이는 제작진의 소품 실수로 밝혀졌지만, ‘펜트하우스’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를 정도였다. 드라마 한 관계자는 “1초도 안 되는 장면으로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며 “제작진과 배우들 모두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 개연성 채우는 연기자들의 연기

극중 부족한 개연성 등은 연기자들의 흡인력 높은 연기로 대신한다. 주연 3인방뿐 아니라 윤종훈, 박은석 등 주인공의 남주들과 김수현, 김영대 등 자녀들까지도 개성 넘치는 연기를 뽐내고 있다. 화제성과 호평에 힘입어 ‘펜트하우스’는 지난해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우수상 등 무려 8관왕을 차지했다.

이중 불륜을 거듭하는 엄기준과 절절한 모정을 표현한 이지아는 “인생작을 만났다”는 시청자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엄기준은 “이번 드라마로 ‘국민 XXX’가 되었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고, 이지아는 “김소연 등 악역 연기자들과 시너지가 난 덕분”이라고 인기 비결을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방탄소년단 지민 ‘정인아 챌린지’ 동참



지민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정인아 미안해’라는 글을 올리며 생후 16개월 임망아 ‘정인’ 양을 애도했다. 지민이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정인아 챌린지’에 동참하자 세계적인 팬덤을 자랑하는 ‘아미’까지 나서 정인 양의 사건을 알리고 엄벌 촉구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해외 팬들은 영문 해시태그 ‘#SorryJungin’라는 글과 함께 자국의 언어로 번역해 동참했다. 스타들도 잇따라 챌린지에 참여하며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임망아정인 연기자 신애라를 비롯해 고소영, 한혜진 등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심장마비 사망’ 김주영 전 아나운서 발인



김주영

2일 심장마비로 사망한 아나운서 출신 김주영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이사의 발인식이 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리얼미터 측에 따르면 향년 3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주영 이사는 울산하늘공원에 잠들었다. 김 이사는 2014년 MBN 아나운서로 입사해 2019년 4월 퇴사했다. 이후 리얼미터 미래전략연구소 이사를 지내면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해왔다.

세븐틴, 美 ‘제임스 코든쇼’ 출연...6일 방영



세븐틴

그룹 세븐틴이 미국 CBS 심야 인기 토크쇼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워드 제임스 코든’(제임스 코든쇼)에 첫 출연한다. 4일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7일(한국시간) 방송되는 ‘제임스 코든쇼’에 출연해 지난해 10월 발매한 스페셜 앨범 ‘세미콜론’의 타이틀곡 ‘훔콘’ 무대를 선보인다. 세븐틴은 최근 영국 매거진 데이즈, 미국 매거진 페이퍼 등이 발표한 ‘2020년 최고의 케이팝 노래 40곡’에 선정되는 등 해외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배두나·이민호·마동석 글로벌하네

배두나, 佛영화 ‘#아이엠하어’ 이어 히로카즈와 재회
이민호는 미드 ‘파친코’, 마동석은 ‘이터널스’ 출연

2021년, 스타들의 글로벌 행보가 이어진다.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명성을 키워온 스타들이 세계무대를 향한 활기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배두나, 이민호, 마동석이 선두에 섰다.

이미 2012년 릴리·라나 위소스키 감독의 ‘클라우드 아틀라스’를 비롯해 2015년 드라마 시리즈 ‘센스8’ 등으로 할리우드에서 작업해온 배두나는 이번엔 프랑스로 날아간다. 에릭 라티고 감독의 ‘#아이엠하어’를 14일 선보인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중년의 프랑스 남자(알랭 사바)가 마치 모험하듯 서울로 날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의



배두나

이민호

마동석

주인공이다.

또 2018년 ‘어느 가족’으로 칸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도 다시 손잡는다. 한국영화 ‘브로커’로, 2010년 ‘공기인형’ 이후 두 번째 호흡이다. 올해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 넷플릭스의 ‘킹덤’ 새 시리즈도 이어간다. 전 세계 유통망을 지

닌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인기를 쌓아온 만큼 또 다른 기대를 모은다.

이민호도 글로벌 OTT로 향한다. 미국 애플TV플러스의 드라마 ‘파친코’를 무대 삼는다. 4대에 걸쳐 굴곡진 세월을 통과하는 한국인 이민 가족 이야기이다. 애플TV플러스가 아직 한국에서는 서비스되지 않고 있지만, 글로벌 유통망을 지닌 OTT인만큼 한류스타로서 명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마동석은 새롭게 할리우드 작품으로 해외 관객을 만난다. 거구의 개성 강한 연기와 미국 출신의 영어 소통 능력 등으로 꾸준히 해외 러브콜을 받아온 그는 올해 11월 전 세계 개봉 예정인 슈퍼히어로물 ‘이터널스’의 주연급이다. 안젤리나 졸리 등 톱스타들과 호흡하며 한국배우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일깨울 기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YouTube

‘성경 경제기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본소득 150만원** 평생지급
누구나 모두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135,000마리,
하루 평균 327마리.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가족으로 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1030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살리는 신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 등극!!!

●종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사무국장 강성만 목사 010-4277-0691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서울 백인조 010-6462-6712/역삼 한비 010-5647-5428/김석우 청곡장 010-7653-5373/이후자 010-9339-8649/신바전 010-9220-4334/김영배 010-8290-8801/강영석 010-3274-5289
●부산 김창주 010-9852-6452/백삼석 010-7309-1000/민영숙 010-5118-5263/김원성 010-3315-1517/성철희 010-5644-2788/윤영기 010-4424-7161/추영민 010-4741-7008
초전교 010-7374-4111/서재운 010-8770-2935 ●대전 김진구 010-8029-0059/김용환 010-3742-5998/전달민 010-2391-8259 ●대구 민영희 010-4846-4950
●울산 지영환 010-8003-5323/최태수 010-4830-1810 ●창원 이혜미 010-3572-4616/이승현 010-5769-0532 ●전남 김태희 010-6258-3510/오영숙 010-8804-3424
●인천 박준표 010-3227-0993/주만 홍원표 010-6717-1779/서동원 010-3489-4190/김포종 010-8488-2999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이천 허민석 010-4707-2659
한신회 010-5177-9479 ●여주 정근영 010-8513-3833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수원 원만드래미 010-3435-0158/박우영 010-5221-8119/김영대 010-8005-3616
●경기 남부 함베트도 010-6806-1931/노수림 010-5153-5983 ●경강 교영철 010-5463-6952 ●충북 충동옥 010-4280-4616/남미옥 010-6852-8897 ●하위아 윤이나 010-8763-8742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 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APP'
□ 선착순 자동결제이거부 품앗이게



하이우분투(주)
1644-6733